

# 가정배경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교육성과를 매개로

황성수<sup>1)</sup> · 이지은<sup>2)</sup> · 금예진<sup>3)</sup>

##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1차(2004)년도 학생, 가구데이터와 수능데이터, 그리고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2019)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정배경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과 개천 龍 특성을 초기교육성과, 중기교육성과, 노동시장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정배경이 교육성과를 매개로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부모교육, 사교육 투자로 설명한 가정배경은 초기교육성과, 중기교육성과를 거쳐 노동시장에서의 양적·질적 성과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좋은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이 높은 노동시장성과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기교육성과 상위 25%, 중기교육성과 상위 23%, 노동시장성과 상위 25%인 개천 龍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할지라도 가정생활에서 안정감을 높여주려는 부모의 노력, 학생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동시에 자존감을 높여주려는 학교 및 가정에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I. 서론

‘불평등이 문제다’(김운태, 2017)라는 책의 서평을 인용하여 불평등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곤란함의 해결이 더불어 사는 미래를 위한 기초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성공한 국가다. 1960년대에 80달러 정도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에는 3만 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OECD가 지속적으로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하위권이다. 경제적 성공을 가장 빨리 이룬 나라가 정신적 불행감에 직면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바로 한국의 비극적 자화상이다. 이 지독한 ‘한국의 역설’이 왜 발생했을까? 정치인들은 1인당 GDP 2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외쳤지만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와 그로 인한 불평등 사회에 있었다.

조지 오웰의 말처럼 “동물들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는데 농장만 배를 불러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2011년에 월 가를 점령한 시위대는 “우리는 99%다!”라고 외치며 상위 1%에 집중된 부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미국의 상위 1%가 나라 전체 부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97.6%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 생긴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정치적 결정, 사회의 암묵적 방조 속에 어느새 하늘 끝까지 올라간 잣의 콩나무와 같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해악을 끼치고 파괴적 갈등을 유발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불평등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도덕적 의무이며, 많은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아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불평등, 평등이라는 정의는 많은 이견과 주장이 엇갈리는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의 갈등과 논쟁을 뒤로하고 본 연구에서 ‘불평등’이란 특정 시점에서의 경제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부(富)가 세대간 이전·고착되는 것, 즉 시간의 변화를 두고도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지속되는 경우라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설명하면, 계층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누진세제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본 연구의 주된 고민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교육에 부여할 수 있을지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배경이 자녀의 성과로 대물림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그 고리를 끊어낼 수는 없을까?’의 고민으로부터 가정배경이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로 가정배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높은 성취를 이룬, 이른바 ‘개천 龍’에 주목하여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고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 변인을 찾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2004)년도 학생, 가구데이터와 수능데이터, 그리고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2019)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정배경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과 개천 龍 특성을 중학교 3학년 시점의 초기교육시장, 대학입학 당시의 수능성적을 활용한 중기교육시장,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II. 선행연구

Blau and Duncan(1967)과 방하남 외(2000)은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직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가구의 소득수준 또는 아버지(또는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최종 학력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Iannelli, 2002; 조우현, 2004; 남기곤, 2008; 여유진, 2008; 안종범 외, 2008; Causa and Johansson, 2010; 우광호 외, 2010; 최은영, 2011; 최필선 외, 2015).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분석자료	분석방법	주요결과
Blau and Duncan(1967)	Current Population Survey	regression	아버지 학력은 자녀의 직업상 성공에 영향 없음. 즉, 미국은 업적지위(achieved status) 사회
방하남, 김기현(2000)	한국노동패널	LISREL 구조방정식모형	자녀의 노동시장 지위는 아버지 학력보다 본인의 학력으로 결정
Iannelli(2002)	European Union Labor Force Survey	로지분석	가정환경이 자녀의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부유럽 > 중부유럽, 남부유럽 > 북부유럽
조우현(2004)	한국노동패널	다중회귀분석, 다항로지	아버지 학력은 자녀의 교육수준과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침.
남기곤(2008)	한국노동패널	비교분석, 로짓분석, OLS	한국은 유럽에 비해 부모학력이 자녀학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만, 직업지위에는 효과가 없음.
여유진(2008)	한국복지패널	대응분석, 경로분석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학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안중범, 전승훈(2008)	한국노동패널	축차방정식 모형 추정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이전 구조 존재
Causa and Johansson(2010)	SILC, PISA	regression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의 교육, 노동시장 성과는 양(+)의 관계가 있음.
우광호, 안준기, 황성수(2010)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회귀분석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은 자녀의 교육과 소득수준에 유의한 영향
최은영(2011)	한국노동패널	Multivariate regression(OLS)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교육은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침.
정혜경, 조지민(2013)	PISA	단순회귀분석, 로짓분석	역경 극복 집단이 상대적으로 학원 강의 및 과외 수혜, 가정에서의 정보통신 활용 가능성 정도, 읽기 다양성, 가정의 읽기 지원에서 낮은 참여를 보이는 특성이 있음.
최필선, 민인식(2015)	한국교육고용패널	OLS, 비모수적 회귀분석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과 수능성적, 임금이 높음.
황성수, 이지은, 금예진(2020)	PISA	비교분석	부모의 사회·경제적배경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침.

OECD에서는 3년마다 PISA<sup>4)</sup>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불리함을 극복했는지 ‘역경극복비율(resiliency ratio)’을 발표하고 있다. OECD

4)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각국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OECD가 3년마다 진행함.

자료에 따르면 PISA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으나 그들 중 몇몇은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기도 하며, 이 비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OECD, 2011). 다만 OECD에서 공표하는 결과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 등의 국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탄력성 개념이므로 시계열 비교가 어렵고, 각 조사별 주요 과목 비율만 공표하고 있어 동일한 과목의 비교는 9년 단위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황성수 외(2020)는 OECD의 ‘역경극복비율’에서 착안, PISA를 활용하여 한국적 맥락에 맞는 ‘개천 龍 비율’을 새롭게 도출하였다. ‘개천 龍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만 15세 학생의 초기교육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발견하였다. 다만 PISA의 경우 만 15세 학생의 자료만 있기 때문에 수능성적을 활용한 대학입학 시점에서의 교육성과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는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EEP과 그 추적조사를 활용하여 개천 龍의 초기교육성과, 중기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까지 분석하였다.

### Ⅲ. 분석 개요 및 모형

#### 1. 분석 개요

##### (1) 분석자료 및 변수구성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중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중학교 3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교육성과를 매개로 노동시장성과를 추정함에 있어 중3 당시 교육성과를 초기교육성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교육성과에는 가정배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을 수 있지만 보다 개인의 능력(ability)을 잘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을 중기교육성과로, 30대 초반 연령의 노동시장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2004)년도 학생, 가구데이터와 수능 데이터, 그리고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2019)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종속변수는 초기교육성과, 중기교육성과, 노동시장성과 3가지로 설정하였다. 초기교육성과는 중3 당시 성적으로 담임교사가 평가한 전교 석차백분율이고, 중기교육성과는 수능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별 등급이다<sup>5)</sup>. 노동시장성과는 객관적인 양적지표로서 현재 직장의 시간당임금(소득)과 시간당임금을 포함하여 개인이 스스로

5) 수능 성적 중 등급 변수를 활용한 이유는 중학교 3학년 코호트의 대부분은 2008년도 수능을 응시하였는데, KEEP과 연계 가능한 2008년도 수능 데이터는 표준점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 변수로 등급을 활용하였다. 2008년도 수능과 2009년도 수능을 모두 응시한 학생의 경우는 2009년도 수능 등급을 활용하였다.

느끼는 주관적인 질적지표로서 일자리만족도, 전공일치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시간당임금, 일자리만족도, 전공일치도를 2:1:1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합산한 20점 만점의 일자리 질 지표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설명변수로 개인배경으로는 성별, 가정생활 만족 여부, 과목별 흥미 여부, 혼자 공부하는 시간, 자존감 관련 문항, 독서 정도, 사교육 도움 여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 독서 정도와 사교육 도움 여부는 제외하였고, 학교배경으로는 중학교 소재지, 학교만족도, 교사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중학교 소재지만을 활용하였다.<sup>6)</sup> 가정배경으로는 가구소득, 부모교육연수, 사교육비 지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데이터	
종속변수	초기 교육성과	중3 성적	중3 당시 담임교사가 평가한 전교 석차백분율(%)	1차(2004) 학생
	중기 교육성과	수능 등급	수능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별 등급(1~9등급)	수능 데이터
	노동시장성과	시간당임금(소득)	현재 직장 근로소득/총 근무 시간(단위: 만원)	추적조사 (2019)
		일자리만족도	현재 직장 근무환경, 근무시간, 대인관계, 임금,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리후생 제도, 고용안정성, 인사체계, 사회적 평판, 전반적 만족도 각 5점 척도의 합(50점 만점)	추적조사 (2019)
전공일치도		현재 직장 전공일치도, 전공유용도, 교육내용유용도, 학력미스매치 각 5점 척도의 합(20점 만점)	추적조사 (2019)	
	일자리 질	현재 직장 시간당임금 1~10점 표준화점수 + 일자리만족도 1~5점 표준화점수 + 전공만족도 1~5점 표준화점수(20점 만점)	추적조사 (2019)	
설명변수	개인배경	성별	남성=1, 여성=0	
		가정생활 만족 여부	중3 당시 가정생활 만족도 5점 척도 중 ④ 그렇다~⑤ 매우 그렇다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③ 보통이다=0	1차(2004) 학생
		과목 흥미 여부	중3 당시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별 흥미도 5점 척도 중 ④ 그렇다~⑤ 매우 그렇다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③ 보통이다 = 0	1차(2004) 학생

6) 개인배경에서 독서 정도, 사교육 도움 여부와 학교 배경에서 학교만족도, 교사만족도를 맥락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변수간 상관관계와 유의성을 고려하여 최종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변수		변수처리	데이터
	혼자 공부하는 시간	중3 당시 ① 3시간 미만, ② 3시간~5시간미만, ③ 5시간~10시간 미만, ④ 10시간~15시간미만, ⑤ 15시간~20시간미만, ⑥ 20시간~25시간미만, ⑦ 25시간~30시간미만, ⑧ 30시간이상	1차(2004) 학생
	자존감-성실	중3 당시 자존감 평가 문항-성실하다 5점 척도 중 ④ 그렇다~⑤ 매우 그렇다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③ 보통이다=0	1차(2004) 학생
	자존감-공부 잘함	중3 당시 자존감 평가 문항-공부 잘함 5점 척도 중 ④ 그렇다~⑤ 매우 그렇다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③ 보통이다=0	1차(2004) 학생
	독서 정도	중3 당시 문학, 교양서적 읽은 정도의 합(10점 만점), ① 전혀 읽지 않음, ① 1권~5권, ② 6권~10권, ③ 11권~20권, ④ 21권~50권, ⑤ 51권 이상	1차(2004) 학생
	사교육 도움 여부	중3 당시 사교육 도움 정도 5점 척도 중 ④ 그렇다~⑤ 매우 그렇다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③ 보통이다=0	1차(2004) 학생
학교배경	중학교 소재지	중학교 소재지가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동)=1, 읍면도서벽지=0	교육 통계 연보
	학교만족도-수업시간 흥미 여부	중3 당시 학교 만족도 평가 문항-수업시간 흥미도 5점 척도 중 ④ 그렇다~⑤ 매우 그렇다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③ 보통이다=0	1차(2004) 학생
	학교만족도-면학분위기 여부	중3 당시 학교 만족도 평가 문항-면학분위기 5점 척도 중 ④ 그렇다~⑤ 매우 그렇다 = 1,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③ 보통이다=0	1차(2004) 학생
	교사만족도	중3 당시 존경하는 선생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 여부 각 있음 = 1, 없음 = 0의 합(4점 만점)	1차(2004) 학생
가정배경	가구소득	중3 당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	1차(2004) 가구
	부모교육연수	중3 당시 부와 모 각 학력년수의 합(편부모의 경우 *2), 졸업 기준으로 무학 0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9년, 고등학교 12년, 전문대 14년, 4년제대 16년, 대학원이상 18년	1차(2004) 가구
	사교육비	중3 당시 1년간 월평균 사교육비(단위: 만원)	1차(2004) 가구

다음은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표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중3 당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4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목할 점은 가구소득이 4분위(상위 25%)로 높은 학생의 중3 성적과 수능 등급이 가구소득이 1분위(하위 25%)로 낮은 학생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이 시간당임금과 일자리만족도, 전공일치도, 일자리 질 지표에서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만족 여부와 과목별 흥미 여부, 자존감, 학교 만족도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만족도는 가구소득과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교

육연수와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소득분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의 부모교육연수와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 기초통계표

		가구소득				
		1분위 (하위 25%)	2분위 (중하위 25%)	3분위 (중상위 25%)	4분위 (상위 25%)	전체
종속 변수	중3 성적(상위 %)	55.61	50.15	46.06	39.90	48.55
	국어 수능 등급(1~9등급)	5.50	5.53	5.29	4.79	5.24
	영어 수능 등급(1~9등급)	5.72	5.62	5.28	4.67	5.29
	수학 수능 등급(1~9등급)	5.60	5.37	5.22	4.82	5.24
	시간당임금(만원)	1.25	1.35	1.43	1.44	1.35
	일자리만족도(점/50점)	31.76	33.39	34.12	33.55	33.01
	전공일치도(점/20점)	11.08	11.85	11.87	12.36	11.70
	일자리 질(점/20점)	8.45	8.98	9.28	9.38	8.96
설명 변수	성별(남성=1)	0.50				
	가정생활 만족 여부	0.55	0.68	0.70	0.74	0.65
	국어 과목 흥미 여부	0.37	0.32	0.38	0.39	0.37
	영어 과목 흥미 여부	0.29	0.29	0.37	0.43	0.34
	수학 과목 흥미 여부	0.35	0.41	0.41	0.51	0.41
	혼자 공부하는 시간	1.78	1.65	1.90	2.09	1.87
	자존감-성실	0.42	0.46	0.49	0.51	0.46
	자존감-공부 잘함	0.12	0.14	0.17	0.21	0.16
	독서 정도	2.78	2.62	2.99	3.30	2.93
	사교육 도움 여부	0.47	0.54	0.60	0.67	0.56
	중학교 소재지	0.77				
	학교만족도수업시간 흥미 여부	0.30	0.31	0.35	0.40	0.34
	학교만족도-면학분위기 여부	0.22	0.18	0.17	0.25	0.21
	교사만족도	2.63	2.54	2.55	2.59	2.59
	가구소득(만원)	149.08	244.05	316.37	549.12	301.57
	부모교육연수(년)	20.86	23.27	24.38	27.59	23.72
	사교육비(만원)	19.86	33.21	43.71	72.45	40.49
N	702	284	476	470	1932	

(2) 분석대상

앞서 가구소득에 따라 변수 특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다음은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교육성과 또는 노동시장성과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 중 높은 성과를 보이는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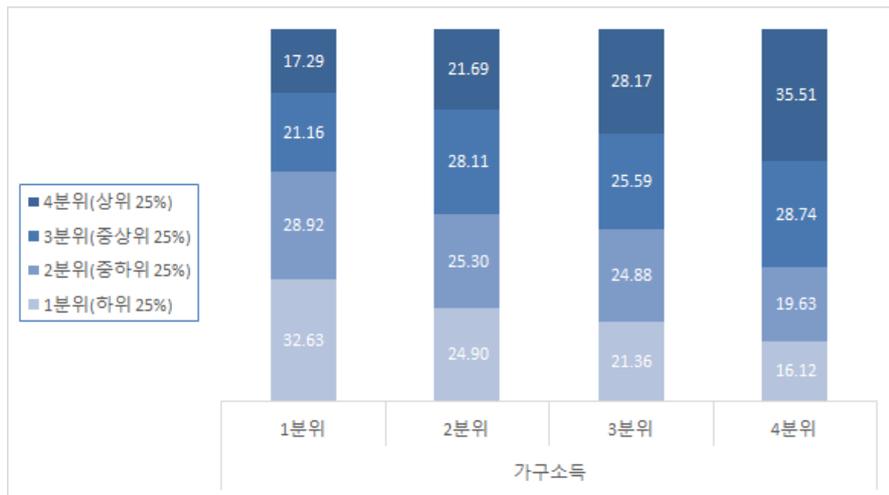
가구소득이 1분위(하위 25%) 집단이 가정배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기교육성과 즉, 중3 성

적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학생의 비율은 17.29%로 나타나 가구소득 4분위(상위 25%) 집단보다 18.2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수능 등급으로 살펴본 중기교육성과에서도 가구소득 1분위(하위 25%) 집단 중 최상위 1등급의 성과를 거둔 학생은 국어 2.17%, 영어 0.00%, 수학 2.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4분위(상위 25%) 집단보다 국어는 1.70%p, 영어는 7.80%p, 수학은 4.86%p 낮았으며, 특히 영어 과목에서 가구소득 수준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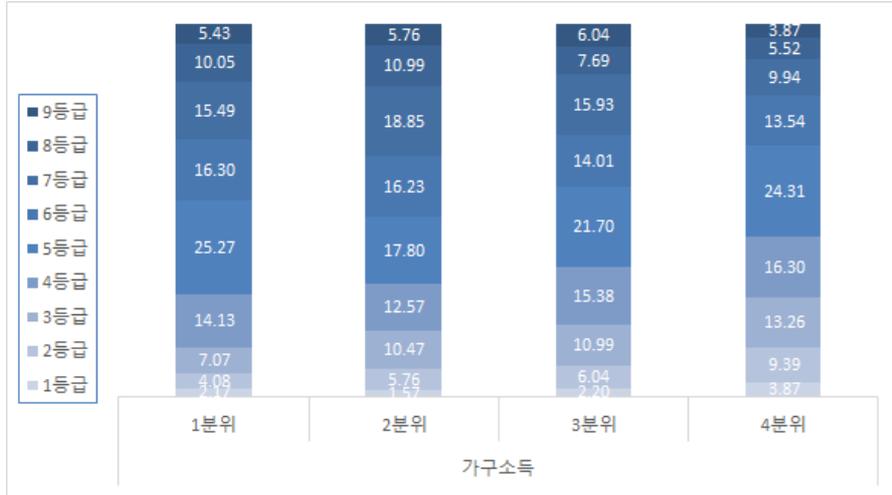
다음으로 노동시장성과 중 양적지표인 시간당임금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1분위(하위 25%) 집단 중 임금 수준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17.12%에 불과하여 가구소득 4분위(상위 25%) 집단보다 13.96%p 더 낮았다. 또한 질적지표인 일자리 만족도와 전공일치도를 반영까지 반영하여 생성한 일자리 질 지표에서도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15.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 4분위(상위 25%) 집단보다 16.44%p 더 낮았다.

종합해보면 가구소득이 1분위(하위 25%)인 가정배경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높은 교육성과 또는 노동시장성과를 얻은 학생은 단순히 보았을 때 20% 미만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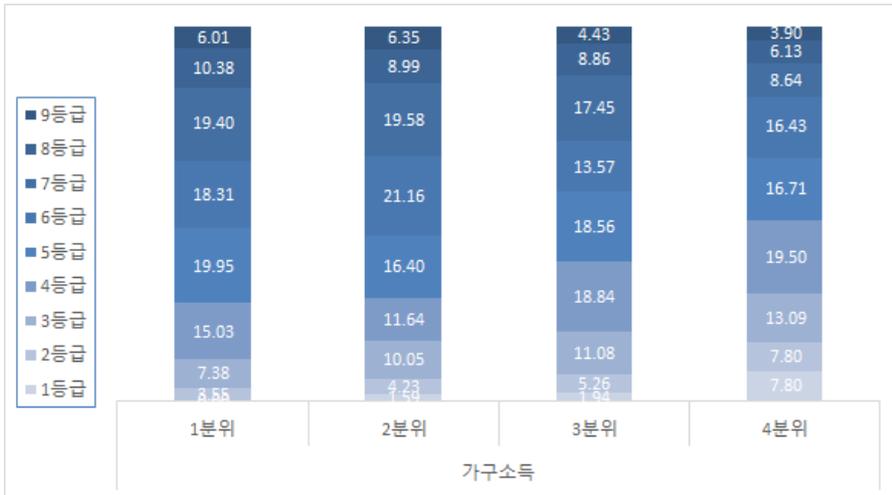


[그림 1] 가구소득분위별 초기교육시장성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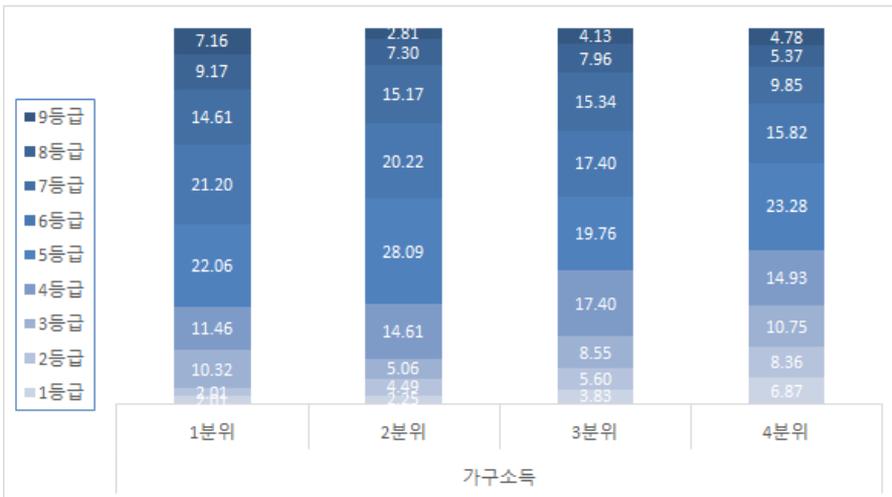
[국어 수능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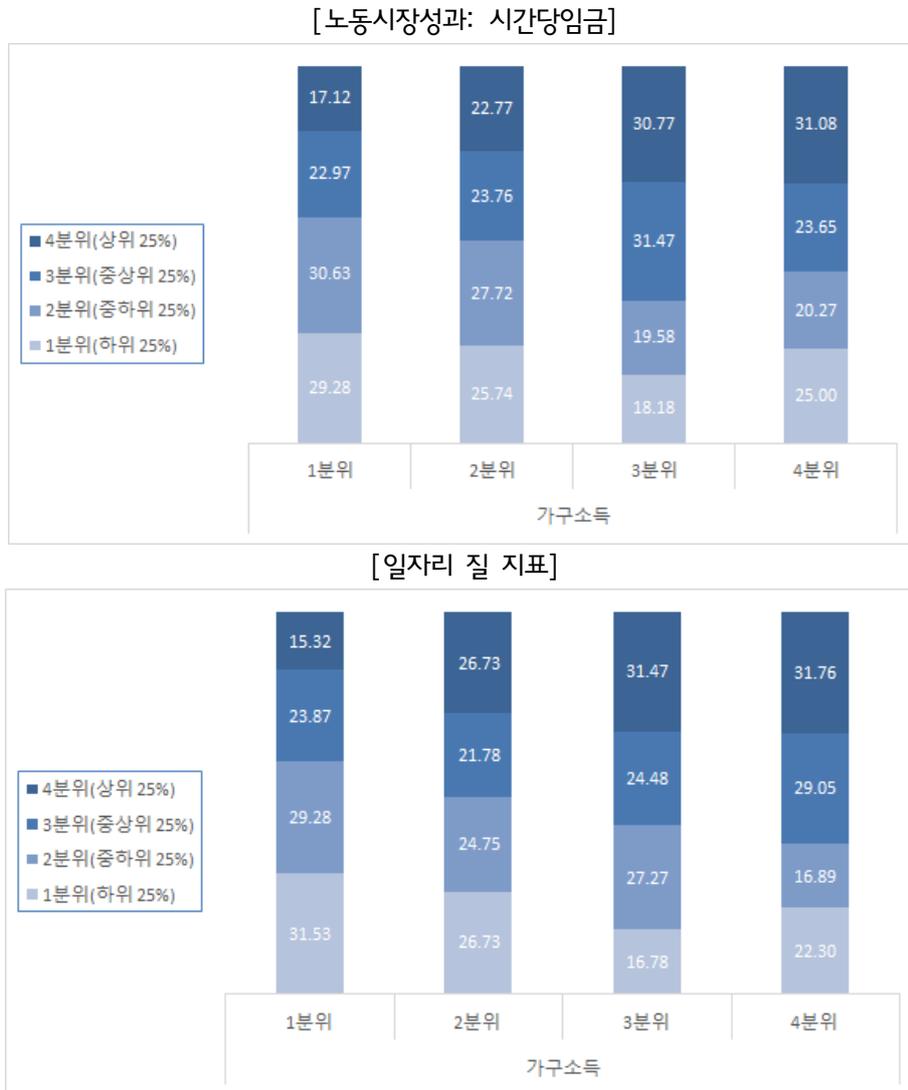
[영어 수능 등급]



[수학 수능 등급]



[그림 2] 가구소득분위별 중기교육시장성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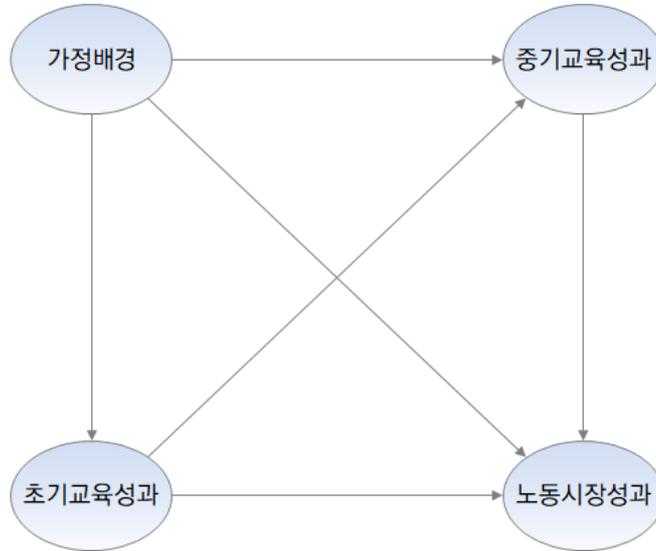
[그림 3] 가구소득분위별 노동시장성과 분포

## 2. 분석 모형

### (1) 모형1 :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 가정배경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아래 그림에서 가정배경은 잠재변수로 (로그)가구소득, 부모교육연수, 사교육비라는 세 가지 측정변수에 의해 추정된다. 초기교육성과는 중3 당시 성적이며, 중기교육성과는 국어, 영어, 수학 수능 등급 세 가지 측정변수에 의해 추정되는 잠재변수이다. 노동시장성과는 단순히 (로그)시간당임금 양적지표 하나의 변수로만 설정한 경우와 일자리만족도, 전공일치도 등의 질적지표도 같이 고려한 경우를 각각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교육성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SE 14의 SEM builder를 활용하였다.



[그림 4] 가정배경, 교육성과, 노동시장성과의 구조

(2) 모형2 : 로짓모형

다음은 앞서 구조모형을 통해 가정배경이 교육성과를 통해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과연 개천 龍은 어떤 집단인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개천 龍 집단은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집단 중 가정배경의 어려움을 극복한, 즉 교육성과와 노동시장성과가 상위 25%<sup>7)</sup>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과 0인 이항(binary)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Logit Model을 추정한다. 아래 모형 (1)에서  $y^*$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고  $x$ 는 이를 결정짓는 요인변수(설명변수)들이다.  $\beta$ 는 추정계수 벡터이며,  $e$ 는 오차항이다. 오차항  $e$ 의 누적분포가 로지스틱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로짓모형 분석을 시행할 수 있으며,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계수가 추정된다.

$$y^* = x_i\beta + e_i \tag{1}$$

개천 龍 특성분석을 위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7) 단, 중기교육성과의 경우 수능 1~3등급에 해당하는 상위 23% 대상임.

$$\ln\left(\frac{\Pr(Y_{1i} = 1)}{1 - \Pr(Y_{1i} = 0)}\right) = \Pr(\beta_0 + \beta_1 I_i + \beta_2 S_i + \beta_3 F_i - \epsilon_i > 0). \quad (2)$$

$$\ln\left(\frac{\Pr(Y_{2i} = 1)}{1 - \Pr(Y_{2i} = 0)}\right) = \Pr(\beta_0 + \beta_1 I_i + \beta_2 S_i + \beta_3 F_i - \epsilon_i > 0). \quad (3)$$

$$\ln\left(\frac{\Pr(Y_{3i} = 1)}{1 - \Pr(Y_{3i} = 0)}\right) = \Pr(\beta_0 + \beta_1 I_i + \beta_2 S_i + \beta_3 F_i - \epsilon_i > 0). \quad (4)$$

$Y_{1i}$ 는 학생  $i$ 가 초기교육성과에서 개천 龍에 해당하는 경우 1,  $Y_{2i}$ 는 중기교육성과에서 개천 龍에 해당하는 경우 1,  $Y_{3i}$ 는 노동시장성과에서 개천 龍에 해당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각각의 이항변수이다.  $I_i$ 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로 성별, 가정생활 만족 여부, 과목별 흥미 여부, 혼자 공부하는 시간, 자존감, 독서 정도를 포함한다.  $S_i$ 는 학생  $i$ 의 중학교 관련 특성으로 중학교 소재지의 터미변수이다.  $F_i$ 는 학생  $i$ 의 가정배경 관련 벡터로 (로그)가구소득, 부모교육연수, 사교육비를 나타낸다.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계수값은 단지 종속변수의 영향에 대한 부호(+,-)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별도로 추정하여 제시한다.

## IV. 분석 결과

### 1. 구조모형 분석 결과 : 가정배경이 교육성과를 매개로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이 교육성과를 매개로 노동시장성과 양적지표(로그시간당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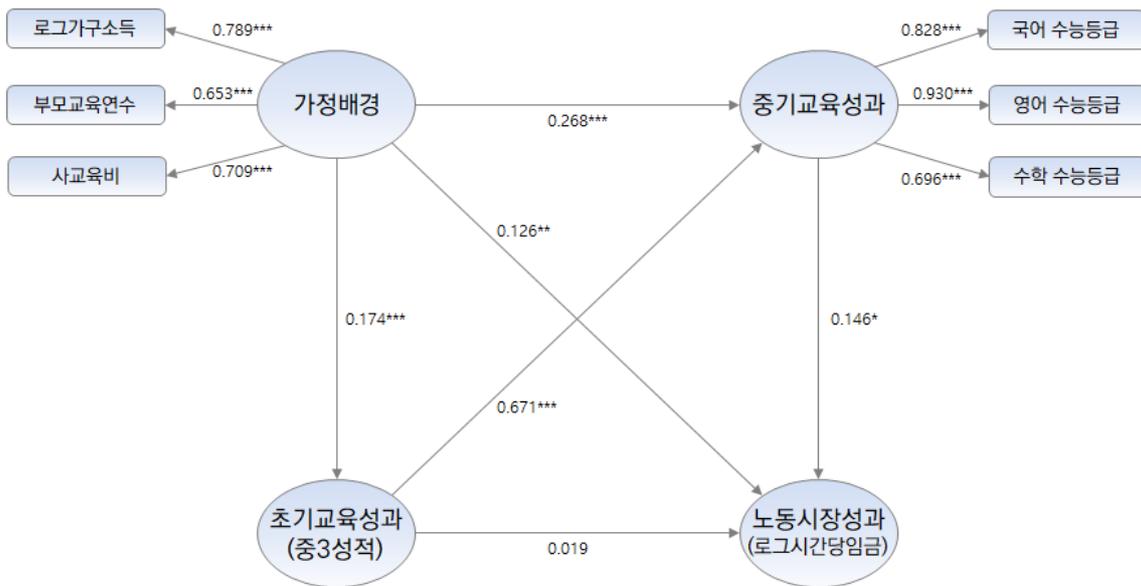
먼저 잠재변수인 가정배경이 로그가구소득, 부모교육연수, 사교육비로 설명되는 정도가 모두 유의하며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그가구소득의 계수값은 0.789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또다른 잠재변수인 중기교육성과를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의 수능 등급이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가정배경이 초기교육성과인 중3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0.17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배경이 중기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직접효과(direct effects)는 0.268, 초기교육성과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s)는 0.116,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계산되는 총효과(total effects)는 0.38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배경이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성과의 양적지표인 로그시간당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0.126 + 간접효과

0.059 = 총효과 0.185로 나타났으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정배경은 로그시간당임금에 직접적으로 0.126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성과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0.059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은 초·중기 교육성과와 이후 노동시장에서 로그시간당임금으로 나타낸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반면 어려운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초기교육성과인 중3 성적이 중기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0.671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초기교육성과가 로그시간당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기교육성과는 로그시간당임금에는 0.146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알 수 있는 CFI가 1.000, TLI가 1.00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며, RMSEA의 값은 0.000으로 추천되는 0.05의 값보다 크게 적어 모형이 적합하게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구조모형 추정 결과 - 노동시장성과 양적지표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다음 [그림 6]은 가정배경이 교육성과를 매개로 노동시장성과 질적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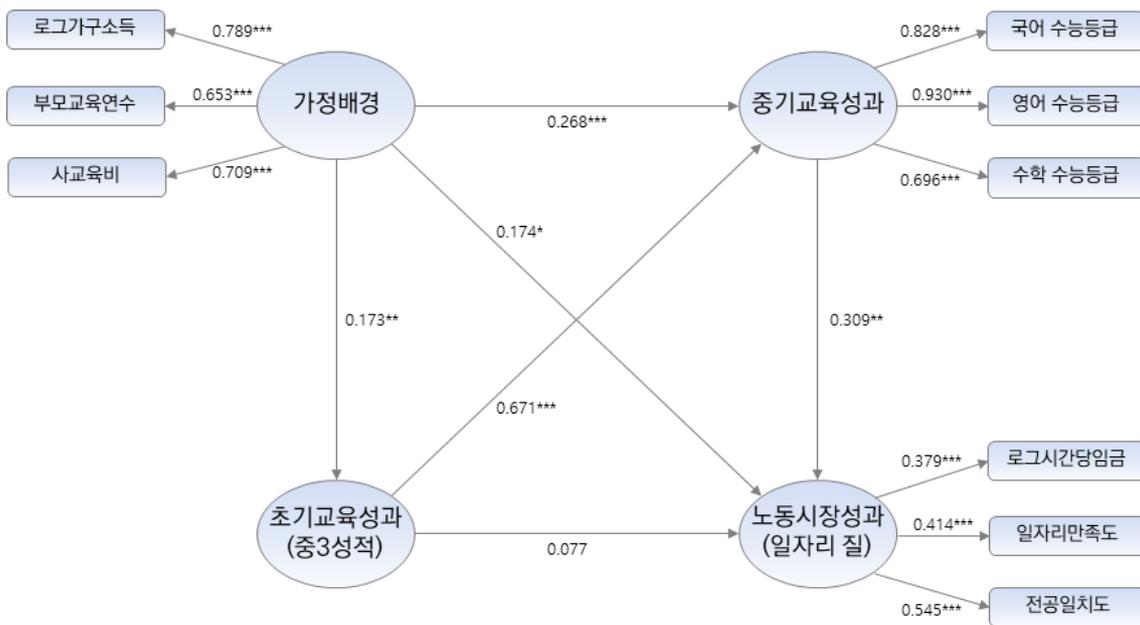
앞서 노동시장성과를 로그시간당임금인 양적지표로만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시간당임금과 함께 개인이 주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라고 판단하는 질적지표가 반영된 노동시장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성과 질적지표로 일자리의 질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는 시간당임금, 일자리만족도, 전공일치도라는 측정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각각의 측정변수가 일자리의 질을 설명하는 영향력은 시간당임금은 0.379, 일자리만족도는 0.414, 전공일치도는

0.545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전공일치도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배경이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0.174 + 간접효과 0.132 = 총효과 0.306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배경이 일자리의 질 지표에 직접적으로 0.176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성과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0.132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앞서 결과와 마찬가지로 좋은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은 초·중기 교육성과와 이후 노동시장에서 질적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주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라고 스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교육성과는 일자리의 질에도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중기교육성과는 일자리의 질에 0.309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CFI가 1.000, TLI가 1.002로 역시 높은 수치를 보이며, RMSEA의 값은 0.000으로 추천되는 0.05의 값보다 크게 적어 모형이 적합하게 수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구조모형 추정 결과 - 노동시장성과 질적지표

주 :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구조모형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가구소득, 부모교육, 사교육 투자로 설명한 가정배경은 초기 교육성과, 중기교육성과를 거쳐 노동시장에서의 양적·질적 성과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좋은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이 높은 노동시장성과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개천 龍 특성분석 결과 : 초기교육성과, 중기교육성과, 노동시장성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가정·개인·학교배경이 개천 龍 해당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 이외에 학교만족도 또는 교사만족도, 사교육 도움 정도, 독서 정도 등을 맥락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변수 간 상관관계와 유의성을 고려하여 최종분석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모형(1)은 초기교육성과에서의 개천 龍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2-1)은 중기교육성과에서의 개천 龍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고, 모형(2-2)는 중3 성적을 추가로 통제한 결과이다. 모형(3-1)은 노동시장성과에서의 개천 龍을 종속변수로 추정하였고, 해당 모형에서 중3 성적을 통제한 경우는 모형(3-2), 수능 성적을 통제한 경우는 모형(3-3)이다.

초기교육성과와 중기교육성과 특성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의 분석 결과에서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 중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수학 과목에 흥미를 느낄수록, 자존감이 있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초기교육성과인 중3 성적이 상위 25%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1)의 분석 결과에서는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 중 스스로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할수록 국어, 영어, 수학 수능 등급이 상위 23%(1~3등급)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 수능 등급은 가구소득과 중학교 소재지에도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2)에서 중3 성적을 통제할 경우 결과는 같았으며 중3 성적은 수능 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천 龍 특성분석(1): 초기교육성과, 중기교육성과

	모형(1)	모형(2-1)			모형(2-2)		
	중3성적	국어 수능 등급	영어 수능 등급	수학 수능 등급	국어 수능 등급	영어 수능 등급	수학 수능 등급
성별	<b>-0.072***</b> (0.025)	-0.035 (0.03)	-0.009 (0.027)	0.035 (0.035)	-0.030 (0.025)	-0.010 (0.020)	0.056 (0.037)
가정생활 만족 여부	<b>0.047*</b> (0.027)	-0.029 (0.034)	0.024 (0.028)	0.049 (0.034)	-0.023 (0.028)	0.019 (0.021)	0.037 (0.034)
국어 흥미 여부	-0.021 (0.027)	0.032 (0.033)			0.039 (0.029)		
영어 흥미 여부	-0.037 (0.026)		0.038 (0.031)			0.029 (0.024)	
수학 흥미 여부	<b>0.102***</b> (0.032)			0.003 (0.034)			-0.009 (0.033)
혼자 공부하는 시간	0.014 (0.009)	0.001 (0.010)	0.007 (0.009)	-0.001 (0.012)	-0.001 (0.008)	0.003 (0.006)	-0.003 (0.011)
자존감-성실	<b>0.081***</b> (0.031)	<b>0.063*</b> (0.033)	0.045 (0.030)	0.035 (0.036)	0.028 (0.029)	0.016 (0.022)	0.002 (0.036)
자존감-공부 잘함	<b>0.477***</b> (0.079)	<b>0.185***</b> (0.057)	<b>0.136***</b> (0.053)	<b>0.190***</b> (0.060)	<b>0.094*</b> (0.052)	0.045 (0.037)	0.098* (0.058)
사교육비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log가구소득	<b>0.098**</b> (0.041)	<b>0.112**</b> (0.052)	0.032 (0.045)	-0.033 (0.052)	<b>0.095**</b> (0.045)	0.022 (0.033)	-0.050 (0.050)
부모교육연수	0.002 (0.003)	0.003 (0.003)	0.003 (0.003)	0.005 (0.004)	0.002 (0.003)	0.002 (0.002)	0.003 (0.004)
학교지역	-0.010 (0.027)	0.053* (0.029)	0.015 (0.028)	0.027 (0.035)	<b>0.043*</b> (0.024)	0.015 (0.019)	0.044 (0.031)
중3성적					<b>0.002***</b> (0.001)	<b>0.002***</b> (0.001)	<b>0.003***</b> (0.001)
수능 국어 등급							
수능 영어 등급							
수능 수학 등급							
observations	611	365	363	347	318	316	302

주: 1.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각 추정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3.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4. 중3 성적과 수능 등급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순(reverse)으로 변경함.

다음으로 <표 5>에는 가구소득 하위 25%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성과 특성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형(3-1)과 모형(3-2)의 분석 결과에서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정생활 만족 여부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하였다. 즉, 가구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 중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주관적인 ‘괜찮은 일자리’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능 성적을 통제한 모형(3-3)에서는 가정생활 만족 여부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개천 龍 특성분석(2): 노동시장성과

	모형(3-1)		모형(3-2)		모형(3-3)	
	시간당임금	일자리 질	시간당임금	일자리 질	시간당임금	일자리 질
성별	<b>0.120**</b> (0.048)	-0.024 (0.043)	<b>0.137***</b> (0.051)	-0.021 (0.043)	<b>0.133**</b> (0.062)	-0.012 (0.058)
가정생활 만족 여부	0.038 (0.046)	<b>0.104**</b> (0.044)	0.051 (0.049)	<b>0.094**</b> (0.045)	0.019 (0.061)	0.068 (0.061)
국어 흥미 여부	-0.028 (0.051)	-0.033 (0.046)	-0.049 (0.051)	-0.022 (0.047)	0.001 (0.070)	-0.030 (0.066)
영어 흥미 여부	0.048 (0.060)	-0.034 (0.048)	0.059 (0.064)	-0.063 (0.044)	0.085 (0.082)	0.007 (0.070)
수학 흥미 여부	0.010 (0.048)	0.019 (0.046)	0.005 (0.051)	0.032 (0.047)	0.017 (0.057)	-0.002 (0.058)
혼자 공부하는 시간	0.018 (0.017)	<b>0.028*</b> (0.015)	0.016 (0.017)	<b>0.027*</b> (0.015)	0.000 (0.020)	0.030 (0.020)
자존감-성실	-0.010 (0.050)	0.046 (0.049)	-0.007 (0.054)	0.026 (0.050)	-0.094 (0.070)	0.109 (0.067)
자존감-공부 잘함	0.024 (0.073)	0.127 (0.093)	-0.013 (0.068)	0.081 (0.088)	0.017 (0.087)	0.067 (0.098)
사교육비	0.000 (0.001)	<b>0.002*</b> (0.001)	0.000 (0.001)	<b>0.002*</b> (0.001)	0.003 (0.002)	<b>0.003*</b> (0.002)
log가구소득	0.125 (0.087)	-0.021 (0.068)	<b>0.161*</b> (0.091)	0.001 (0.067)	0.121 (0.109)	-0.121 (0.084)
부모교육연수	<b>0.010*</b> (0.006)	0.005 (0.005)	0.007 (0.006)	0.003 (0.005)	<b>0.019**</b> (0.008)	0.010 (0.008)
학교지역	-0.056 (0.054)	-0.041 (0.052)	-0.052 (0.055)	-0.054 (0.052)	-0.018 (0.066)	-0.015 (0.069)
중3성적			0.001 (0.001)	0.001 (0.001)		
수능 국어 등급					0.006 (0.021)	-0.005 (0.023)
수능 영어 등급					0.013 (0.027)	-0.026 (0.029)
수능 수학 등급					-0.007 (0.021)	<b>0.038*</b> (0.022)
observations	221	221	200	200	133	133

\*\*\* 1%, \*\* 5%,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각 추정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3.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4. 시간당 임금에는 log값을 취함.

위의 분석결과로부터 가정생활 만족 여부, 과목 흥미 여부, 자존감, 개인의 성실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한 맥락변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안전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생활만족의 경우 초기교육성과와 일자리의 질을 반영한 노동시장성장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성과의 양적지표인 시간당임금에는 부모의 경제력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가구소득, 부모교육연수가 유의하였으나, 일자리 질에는 교육에 대한 열의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비, 개인의 성실성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

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하였다. 즉, 초기교육성과에는 흥미와 자존감, 노동시장성과에는 교육에 대한 열의와 성실성 등이 유의한 맥락변인이다. 따라서 가구소득보다는 사회적 안정감, 흥미, 자존감, 성실성 등의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부모의 소득 등 가정배경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개천 龍에 해당하는 이들의 맥락변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정책을 통해 개천 용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파악해 보려는 두 가지의 분석방법과 결과를 제공하였다.

먼저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정배경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기교육성과인 중3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0.174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가정배경이 중기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총효과(total effects) 역시 0.384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가정배경이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성과의 양적지표인 로그시간당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0.126 + 간접효과 0.059 = 총효과 0.185로 나타났으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정배경은 로그시간당임금에 직접적으로 0.126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성과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0.059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세 가지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은 초·중기 교육성과와 이후 노동시장에서 로그시간당임금으로 나타낸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반면 어려운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높은 교육성과 또는 노동시장성과를 얻은 개천 龍 집단에 속할 확률을 분석한 로짓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록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속하는 가정배경임에도,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수학 과목에 흥미를 느낄수록, 자존감이 있을수록 초기교육성과인 중3 성적이 상위 25%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국어, 영어, 수학 수능 등급이 상위 23%(1~3등급)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3 성적을 통제할 경우에도 결과는 같았으며 중3 성적이라는 초기교육성과는 수능 등급으로 정의한 중기교육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정생활 만족 여부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하였다. 즉, 가구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 중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주관적인 ‘괜찮은 일자리’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로짓분석결과를 통해, 가정생활 만족 여부, 과목 흥미 여부, 자존감, 개인의 성실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한 맥락변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생활만족의 경우 초기교육성과와 일자리의 질을 반영한 노동시장성장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성과의 질적지표인 일자리 질에는 개인의 성실성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유의하였다. 즉, 초기교육성과에는 흥미와 자존감, 노동시장성과에는 교육에 대한 성실성 등이 유의한 맥락변인이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할지라도 가정생활에서 안정감을 높여주려는 부모의 노력, 학생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동시에 자존감을 높여주려는 학교 및 가정에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 참고문헌 ❖

- 김윤탈(2017). 불평등이 문제다(대한민국 99퍼센트의 내일을 위한 전략), 휴머니스트, 2017.
- 남기곤(2008).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 방하남, 김기현.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2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
- 안중범, 전승훈(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광호, 안준기, 황성수(2010). 교육 및 부(富)의 세대간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9.
- 정혜경, 조지민(2013). PISA 2009 읽기와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에 기반한 역경 극복 학생 특성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16(1).
- 조우현(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권2호.
- 최은영(2012). 소득계층별 교육과 가구소득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20(3).
- 최필선, 민인식(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 황성수, 이지은, 금예진(2020). PISA 데이터로 살펴본 각국의 교육 형평성 비교. KRIVET Issue Brief 185호.
- 황성수, 이지은, 금예진(2020). PISA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본 교육 형평성 변화. KRIVET Issue Brief 184호.
- Blau, Peter M., and Otis D.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1967.
- Iannelli, C.(2002). Parental Education and Young People's Educational and Labour Market Outcomes: A Comparison across Europe. Mannheimer Zentrum fur Europaische Sozialforschung. Working Paper No.45.
- OECD(2011). Against the Odds: Disadvantaged Students Who Succeed in School.
- Orsetta Causa and Asa Johansson(2010).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Vol. 2010.

## ❖ Abstract ❖

###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Labor Market Outcomes - Through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Hwang Sung-Su, Lee Ji-Eun, Keum Yejin(KRIVE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verall impact of family background on labor market performance. For this study, we utilized data from the Korea Education Employment Panel Survey (KEEP) conducted in 2019 as well as college entrance exam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family background, which was measured by household income, parental education, and investment in private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through educational performance in early stage and middle stage. The result also indicates that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family background are more likely to achieve higher levels of labor market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tudents' levels of resiliency, even though students are from the bottom 25% family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they are likely to show a good level of performance in labor market if there are parents' efforts to enhance the sense of stability in family life and also to raise children's self-esteem at home as well as in school..

**Key words:** KEEP data, resilience ratio, educational achievement, labor market outcomes